

서울반도체, LED 가로등 중국공급

설치비 50% 저렴하고 소비전력 55% 절약 ... 높은 공간효율성도 장점

서울반도체(대표 이정훈)는 중국 Yangzhou에 밝기조절 기능이 적용된 아크리치 LED 가로등을 설치했다.

아크리치 LED 가로등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를 바꾸는 인공지능형 스마트 가로등으로, 설치비용이 기존의 고압나트륨 가로등보다 50% 이상 저렴하고, 소비전력도 55% 이상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가로등을 띄엄띄엄 설치해도 공간을 충분히 밝힐 정도로 공간효율성이 좋아 낙뢰를 막아주는 서지보호 장치(급격한 과전류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)를 사용할 수 있다.

아크리치 가로등에 장착된 아크리치2 LED 모듈에는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고집적 소자기술(Multi Junction Technology)을 적용한 <MJT4040 LED> 패키지가 사용됐다.

그리고 컨버터를 손톱만한 크기의 아크리치 IC(직접회로)로 대체해 가로등 에너지 역률을 0.99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광효율도 100lm/w를 달성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7/30>